

“ 나 홀로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가 있다면?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자기 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좋지 않다. 심지어 아내를 독점하겠다는 이마저도 현대적이지 못한 이기주의자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터에 기업을 독점하려는 재벌이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겠다는 독재자는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된다.

이런 독점의식이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일에도 큰 독소가 되고 있다. 어느 목사님이나 성도가 이 교회는 내가 피땀 흘려 세웠고 가꿔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사랑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침범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이들을 경쟁 대상 또는 적군으로 생각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몰아내려는 정신 빠진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텃세 정도가 아니고 교회 독점욕이 발동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탄의 아성으로 만들어 놓게 된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자칭 애국자들 즉 여당, 야당, 군인들, 공무원, 기업인, 운동권 학생 등 모두가 자기들만 진정한 애국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나라가 누구를 참 애인으로 맞아야 할지 난감한 형편이다. 그러나 다른 독점과 같이 애국의 독점이나 교회 사랑의 독점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자기만 나라와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요 신자라면 다른 애국자나 신자 모두 가짜라는 말이고 자기 방식대로 나라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고 하나님 사랑이라 하니 이 또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을 남기셨다고 자기 혼자라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들 자칭 애국자나 언필칭 하나님 또는 교회 사랑을 자기만 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은 나라에도 하나님께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짓 확산 속에 살고 있는 가증한 자라 할 것이다. 애국 독점자나 교회사랑은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이들의 정신구조를 분석해 볼 필요도 없이 이들의 나라사랑이나 교회사랑은 결국 자기 이익이나 자기 이상을 사랑하며 나라나 하나님을 빙자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로 일하신 분들이 선임자나 후임자에게 인계인수를 공식적으로 가져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나라 사랑하여 장관으로 일을 했는지 묻고 싶었다. 국가 이익보다 자기 치부나 치적을 세우려 했다면 그는 참 애국자가 아니듯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 자일 것이고 자기 소욕이나 채우려고 충성 봉사했다면 아무리 큰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했노라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애국을 독점하려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있지만 권력을 독점하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사람들처럼 사람들 눈에 쉽게 발견된다. 하물며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모르실리 없겠거늘 누가 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속임수로 눈가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두려운 일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서양 사람들은 매일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받아야 부부간에 안심한다 하지만 한국의 애처가는 조용히 남편의 본분을 성실히 함으로 아내 사랑을 나타낸다. 그런데 애국이나 하나님 사랑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나라와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애국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떠들지 않는다. 이제 우리도 아내에게 대하듯 좀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깊이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때가 되었다. 나라 사랑은 더 많은 이들이 나라를 사랑하게 해야 하듯 교회 사랑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국독점, 교회 사랑은 나 홀로만이라는 환상을 먼저 버리는 것이 참 사랑의 시작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366호] 2013년 5월 11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3:31-35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Who Is My Family?” Pastor
* Hymn	619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선 교 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또,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감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
--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

“ 우리 아이들, 어떻게 기를까요 ”

■ 샷 13:8-14

하남께서 세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개별적으로 그 중심과 심령을 보시고 가리우지 않은 만낫, 위경하지 않은 그 실체를 보십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1.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 되어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인식하고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며 따라서 가정은 건강하게 유지되고 보존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낙원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은 부부의 사랑에 금이 갔기 때문이었고, 그 금간 틈새로 사탄이 침입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진짜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복낙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하고,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계승과 신앙교육을 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 19:14).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앞둔 때였습니다. 자신의 앞에는 죽음이 다가와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며 축복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이를 용납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함을 수용하는 곳입니다.

2. 천국은 하나님 다스림에 만족하는 곳이다

천국은 하나님 주권, 하나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와 운행 앞에 모두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서 전적인 수용과 전적인 기쁨으로 용납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끝, 사랑의 자평의 끝은 어디까지야 합니까? 그 곳은 원수의 자리까지입니다. 천국은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여 원망과 불평이 없고 언제나 평온과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부모의 삼손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부모와 당대의 사람들은 나실인으로 성장해 가는 삼손을 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실인을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구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그 깊고 높으신 뜻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외적으로는 나실인으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정이 있고 화려한 직책이 있고 종교성이 풍부하고 매 주일 예배에 감동을 받는다고 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영, 그의 다스림에 순복 하는 영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식은 여호와와의 주신 기업이다.

“아이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다” (시 127:3).

자식은 내게 주신 여호와와 기업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생명이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본문 12절에 마노아는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가 여호와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한 상태에서 “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는 양육의 방법만 질문했을 뿐 자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양육을 했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소홀히 함으로 기문을 망쳐버린 경우입니다. 엘리 기문은 신앙교육에 실패하므로 나라의 길로 떨어진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맺는 말

법례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만 들었다고 만사가 행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십자가 그 심볼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무서워합니다. 성전만 밝다고 교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의 손에 들려진 힘은 특이요 악마적인 것으로 멸망의 불씨에게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바르게 심어주고, 하나님 섬기고 올바르게 예배하는 법과 주민민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의 길을 가노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실 터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이재홍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이강진 장로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최종호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기 도	손태현 집사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05:1-3...	인 도 자	성 경	시 8:1-9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 찬 송 Hymn	다 합 께	설 교	"감격의 삶"	설 교 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특별찬양	말 은 이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8(아비아주일)...	다 합 께	* 찬 송	304(404)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기 도 Prayer	말 은 이	* 주기도송	다 합 께	
찬 송 Hymn	다 합 께	기 도	이옥희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창 46:28-34 ...	인 도 자	성 경	엡 5:22-33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찬 양	찬 양 대	
봉헌 Offering	다 합 께	설 교 ...	"그리스도와 교회" ...	설 교 자
* 봉헌송 Offering Hymn	다 합 께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기 도	이옥희 권사	
찬 양 Anthem	찬 양 대	성 경	인 도 자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찬 양	찬 양 대	
설 교 Sermon	"요셉의 효도"...	설 교 ...	"그리스도와 교회" ...	설 교 자
* 찬 송 Hymn	다 합 께	기 도	이옥희 권사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성 경	인 도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찬 양	찬 양 대	

수 요 예 배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언 · 박수강 · 김복희

새벽기도회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서명철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살롬 권사회 월례회 / 20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일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김관섭(영상의학)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동준(내과),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4. 최종호목사 소개</p> <p>전주 한일 장신대</p> <p>장신대 신대원</p> <p>동아 인제대 사회복지학과</p> <p>미국 샌프란시스코 신대원 목회학박사</p> <p>익산 한울교회 담임목사</p> <p>익산 노회장</p> <p>15. 오늘 주일설교를 해주신 전재홍 협동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p> <p>16. 오늘 찬양예배 시 설교를 해주신 한울교회 최종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p> <p>☛결 혼</p> <p>1. 진경민 군(10교구 진돈 장로, 김경희 권사의 차남)과 정유영 양(정석순 집사, 김형란 권사의 장녀) / 5월19일(토) 오후2시30분 엠플러스컨벤션웨딩 4층 나린홀(2190-2251~2) / 3호선 분당선 도곡역 하차 4번출구</p> <p>☛장 례</p> <p>1. 故 박익순 권사 (9교구 안미경 권사의 모친) / 6일 별세, 8일(화) 발인</p>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778명	225명	207명	1,210명	14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5/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5월 6일	헌금	49,903,460	
"	찬양운영비		240,000
	선 교 비		1,000,000
"	경 조 비		390,000
	출 판 비		270,000
	복리후생비		40,000
	통 신 비		505,350
	차량유지비		618,000
	소모품비		1000240
	수선유지비		3,790,400
	식당운영비		400,080
	합 계	49,903,460	8,254,070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어버이주일일을 맞아 교육1국 학생들이 준비한 찬양과 울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